

산사음악회... 예술제... 신라문화제...

단풍보다 고운 행사 풍성

10월을 맞아 지역자치단체와 연계한 문화축제, 산사음악회, 단풍제 등 불교문화 행사들이 잇달아 열린다. 우선 새로운 표의의 방편으로 각종 받고 있는 산사음악회가 지난달에 이어 계속된다. 오대산 월정사가 성보박물관 개관 2주년을 맞아 마련한 산사음악회를 12일 오후 6시에 연다. 월정사는 산사음악회 외에 오는 11월 30일까지 월정사 용금루 상설전시장과 성보박물관 전시실에서 '사진으로 보는 100년 전 오대산의 성보문화제', '강원도 성보 유물전'도 열어, 가을 산사를 찾은 이들에게 월정사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제 흥복사는 6일 사찰내에 조성된 코스모스 공장에서 찬불가 발표회 등 가을 축제를 마련하는 한편 사찰

내 시민선방에서 전북지역 출신 화가와 서예가들의 작품 전시회를 갖는다. 전남 영암 도갑사는 7일 도선국사 성보관 개관식 기념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법회 및 산사음악회를 열 예정이다. 8일~10일에는 신라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오늘에 되새기는 신라문화제가 열린다. 경주시와 신라문화선양회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9일 불국사에서 열리는 신라불교영산대제 시연을

10월에 열리는 불교문화행사

Table with 3 columns: 행사명, 날짜, 연락처. Lists various Buddhist cultural events like '월정사 산사음악회', '미륵사 작은음악회', etc.

비릿, 경축음악회, 불꽃놀이 등으로 진행된다. 또 이 기간에 맞춰 원효학 연구원이 준비한 제6회 원효예술제도 경주 분황사에서 열린다. 풍물, 시낭송, 판소리, 무용 등 다양한 볼거리와



10월에는 단풍 고운 산사로 가자. 덩으로 단풍보다 더 고운 '불교문화'의 향취에 흠뻑 빠질 수 있을 것이다.

탐들이 등 체험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서울 북한산 심곡암은 13일~21일 까지 부처님 진신사리친견법회, 성문스님 선화 전시, 산사음악회 등 제3회 단풍문화축제를 마련하고, 해남 미황사도 지난해에 이어 지역 출신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만드는 작은음악회를 27일 연다.

서반환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승화시키고자 강화도 전동사의 강화군이 함께하는 삼랑성역사문화축제가 12일~14일 열리고, 17일 서울 성동구민센터에서는 지역불교활성화와 결식아동 돕기를 위한 제1회 성동불교문화축제가, 19일~21일에는 충북 보은군 속리산 일원에서 속리축전이 열릴 예정이다.

이밖에 135년 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해군이 악탈해 간 외규장각 도

이은자 기자 elee@buddhista.com



김홍근이 쓰는 문학속의 불교

서양 상인들이 처음 남아프리카에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이다. 원주민들의 마을을 둘러보는데, 원래 가난하여 가지 있는 물건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실망하여 돌아서 나오는데, 동구 밖 큰 나무 아래 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노는 구슬은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닌가. 자세히 보니, 그 구슬은 바로 다이아몬드였다. 상인들은 아무 말도 않고 일단 배로 돌아갔다.

다음날 상인들은 아이들을 불러 업사탕을 하나씩 나누어주었다. 난생 처음 먹어보는 달콤한 맛에 낯을 빼앗긴 아이들은 집으로 뛰어가 얼마 아파에게도 자랑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상인들 주위로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상인들은 모두에게 사탕을 하나씩 나누어주었다. 사람들은 낯선 이방인의 넓은 아량에 감사하며 사랑의 달콤함에 빠져 들어갔다. 이런 무상 원초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계속되었다. 드디어 모두가 사랑 맛을 알게 되었을 때, 상인들은 물물교환을 시작했다. 다이아몬드를 가져오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바래준 것이다. 보석의 가치를 모르던 원주민들은 그래도 좋다고 따지는 대로 다이아몬드를 모았다. 상인에게 바쳤다.

동양사상의 기본구조 (3)

예술은 道 인간의 참마음 드러내는 일

가치를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싸구려에 정신을 팔고 있지 않은가? 매일매일 다이아몬드를 사랑과 바꾸며 살고 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내가 지난 다이아몬드는 무엇인가? 부처님과 많은 선지식은 우리가 가진 소중한 금강석은 바로 불성(佛性)이라고 가르쳐주었다. 혹은 알기 쉽게 '마음'이라고 하였다. 그 소중한 마음은 잃어버린 채, 물질문명의 환영만 좇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작나라한 자화상이 아닌가?

동양에선 마음을 키우는 최선의 방법을 어느 한 가지에 몰두하여 정진하는 것이라고 보고, '일(道) 경(道)에 비유하였다. 그리고 이 '도'의 원리에 가장 근접한 것이 곧 예술의 세계라고 보았다. '예술'이란 용어는 근세 일본학자들이 아트(Art)를 번역한 말이고, 원래 동양에선 '서도(書道)'처럼 모든 예술을 '도'로 취급했다. '형상'의 묘사를 중시하여 '기술'이란 어원을 지닌 아트(Art)라는 단어를 예술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한 서양과는 달리, 동양에선 시서화(詩書畫)를 하나로 융합하여 무예(無味) 무상(無相) 참된 본성을 드러내는 것을 중시하였기에 모든 예술은 근본적으로 도에 가깝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도'의 지극한 경지는 궁극적으로 '불이(不二)'의 세계인 '선(禪)'의 품에 안길 수밖에 없다. 추사가 난초를 그린 지 20년 만에 쌍계사에서 유마(維摩)의 '불이선'을 깨닫고, '글씨 쓰듯이 난초를 그리고 난초 그리듯이 글씨를 쓴' <불이선(禪과 筆이 다르지 않음)>은 그 고고한 경지를 증명해준다.

예술의 도를 익히기에는 시일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이든 하나를 선택하여 꾸준히 정진하면, 하늘과 더불어 날지 않는 마음을 얻을 것이다.

■문학평론가

조선후기 조각서 보는 희노애락

11월 28일까지 로댕갤러리 불교조각 등 70여점 전시

조선후기(17세기 후반~19세기)에 제작된 불교조각, 능묘조각, 토속신상 등 70여점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발견! 조선후기 조각전'이 11월 28일까지 서울 태평로 남대문 옆 로댕갤러리에서 열린다. 호암미술관이 준비한 이번 전시는 그동안 서화나 도자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져 온 조선후기 조각작품들을 새롭게 조명하고, 조각의 다양한 발전상과 그를 통한 시대적 특징을 찾아보는 자리다. 조선후기는 실학의 발흥으로 실사구시의 풍조가 전 사회를 지배한



조선후기에 제작된 나한상.

시기였고, 이러한 사회변위기 속에서 활화, 음악, 문학 등 다 방면에서 새롭고 신선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미술에서도 이같은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작품들이 제작되었다. 사찰의 불상이나, 능묘의 석인, 석수

들이 주류를 이루던 조선전기까지의 조각과는 달리, 조선후기에는 상여 장식의 꺾뚜조각이나, 본묘의 벽수, 각종 토속신상 등 다양한 종류의 조각들이 제작되었으며, 사찰에서도 나한상, 동자상, 동물상 등 보다 자유스러운 미감의 표출이 가능한 조각작품들이 만들어졌다. 전대에 비해 보다 인간적인 변모나, 희노애락의 감정표현이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된 점 등이 조선후기 조각작품의 특징이다.

불교조각의 경우 얼굴만 자세히 묘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과감히 생략한 나한상과 나무를 깎아 만든 사자행법고대 등이 높은 완성도를 보여준다. 02-2259-7881

이은자 기자



추석을 맞아 지역박물관들의 민속놀이 행사가 다채롭다. 사진은 민속박물관 공연 장면.

추석연휴 박물관에 가면 민속놀이 한마당

추석을 맞아 국립중앙박물관 및 각 지역박물관들이 정기휴관일인 월요일(추석)에도 일제히 문을 열고, 관람객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열린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달의 문화재 전시'로 1일부터 한달간 <분청사기회화전(동무늬보), <백자(제기) 등 우리의 전통 제사용기 11점을 전시한다. 또한 추석 당일 오후 2시와 4시, 2회에 걸쳐 연극 '개미 가족의 가을여행'을 본관 강당에서 공연하며, 2층 로비에서는 김홍도, 신윤복의 풍속화를 목판에 찍어가는 탁본체험과 12지신상 등 전통문양

스탬프 찍어가기 행사가 펼쳐진다. 국립중앙박물관은 3일까지 후호놀이, 제기차기, 윷놀이 등 '추석맞이 전통놀이 한마당'을 개최하며, 전주박물관도 3일까지 윷놀이, 팽이치기, 널뛰기 등 '한가위 민속놀이 한마당'을, 대구박물관은 대구지역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유물 300여점을 전시하는 '대구 5천년 전과 팽이치기, 윷놀이, 후호, 등 민속놀이 한마당'을 연다. 또한 공주박물관도 제기차기, 널뛰기, 팽이치기, 후호 등 민속놀이 '마당' 행사를 마련한다. 02-398-5077

이은자 기자

온라인 게임 '탄트라' 12월 출시

불교와 힌두교의 색채가 짙은 3D온라인 게임 '탄트라'가 (주)한빛소프트 온라인게임 개발팀에서 개발중이다.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된 이 게임은 현재 약 70% 이상이 완성된 상태로, 오는 12월 베타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체 이야기구성은 절대산신(브라흐마, 시바, 비슈누) 중 시바

의 반란으로 브라흐마가 죽고, 시바와 비슈누간의 전쟁으로 결국 시바가 제거되는데, 후에 시바가 부활해 일으킨 2차 반란을 게이머들이 저지한다는 것이다. 불교의 8인인 수라, 아차, 나출, 긴나라, 가루라, 용왕, 천왕, 호왕이 게임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게이머들은 8종족 중 하나를 선택해 게임을 이끌어 간다.



한빛소프트에서 개발중인 온라인 게임 '탄트라'

불교 TV가 정성들여 준비한 삼베명품전

孝道佛事



₩ 400,000원

극락왕생복 특별할인가 (남·여) 각 1,120,000원 스님들의 수의도 갖고 있습니다.



수분흡수와 방산기능은 일반면의 6배. 무좀이나 피염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 30,000원

삼베양말 특별할인가 (남·여) 각 1set(6족) 20,000원



삼베목수건은 식물성섬유와 동물성섬유의 장점을 살려 제작해 삼베목수건의 사각사각한 느낌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 20,000원

삼베목수건 특별할인가 1개 10,000원 / 크기 24cm(너비)×262cm(길이)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서울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대표전화: 02-3270-3300 팩스: 02-3270-3498



• 불교TV 후원의 전화: ARS(02)700-1032(한 통화에 2,000원의 후원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TV 시청 방법: 전국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SO)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주문 전화(불교TV사업부) 02-3270-3366~7